
서 평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2024, 역사비평사) -
유바다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지수걸, 2024, 역사비평사) -

유바다*

〈목 차〉

- I.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연구의 정착과 최근 부진에 빠진 연구 현황
- II.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자의 1894년 都會, 즉 어셈블리에 대한 추적 과정
- III. 동학군의 전투 행위가 아닌 정치적 담판을 위한 “공주 점거투쟁”의 역사적 의미
- IV. 자료 및 이론 활용의 한계와 연구사적 의의

**I.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연구의 정착과 최근 부진에
빠진 연구 현황**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두고 한국 학계가 “농민전쟁”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으로 정립한지는 꽤 되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1848년 혁명의 실패를 뒤로 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850년 서술한 『독일농민전쟁(Der deutsche Bauernkrieg)』에 입각하여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조선 내부의 계급투쟁적 항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중세 봉건제 시대에서 근대 자본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한국사의 역사발전 단계를 증명하는 정점에 “농민전쟁” 연구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일찍이 박태원의 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갑오농민전쟁”으로 명명하였으며, 1994년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이 출간된 바 있다. 한국에서도 鄭昌烈의 『甲午農民戰爭研究』(1991,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申榮祐의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1992,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裴亢燮의 『東學農民戰爭 研究』(1996,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李眞榮의 『東學農民戰爭과 全羅道 泰仁縣의 在地土族』(1996,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에 이르기까지 동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작성된 각종 박사학위논문에서 농민전쟁론이 우위를 점하였다. 같은 시기 慎鏞廈는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1993, 一潮閣)를, 金洋植도 『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1996, 신서원)을 저술하였으며,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소장 李離和를 중심으로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996, 史芸研究所) 전 30권을 편찬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도 『1894년 농민전쟁 연구』(1992~1997, 역사비평사) 전5권의 연구서를 출간하였고 역사학연구소는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1994, 거름)을 펴냈다. 농민전쟁론이 압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연구가 부진에 빠졌다. 더 이상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학위논문이나 연구서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한편 2010년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세워지고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전자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연구 여건이 나아질수록 심화되었

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이 법제화되면서 이병규가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2003, 원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저술하였을 뿐 한동안 관련 학위논문이나 연구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연구서로는 박맹수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2011, 모시는사람들), 이영호의 『동학사상과 조선 농민혁명전쟁』(2016, 동인통문), 성주현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2019, 선인)이 거의 마지막이며, 박사학위논문으로는 신진희의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2016, 안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장수덕의 『內浦地域 東學農民戰爭 研究』(2020,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선원의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 연구』(2023,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정도를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기존의 농민전쟁론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엥겔스는 『독일농민전쟁』의 첫머리에서부터 “독일민족에게 혁명적 전통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면서 1525년의 독일농민전쟁을 1848년 혁명과 비교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였다. 1848년의 혁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1525년의 독일농민전쟁을 소환하였기에 저작이 『독일농민전쟁』이 되었을 뿐 엥겔스는 독일농민전쟁을 혁명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농민혁명론 또한 농민전쟁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 시각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농민혁명론으로의 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민전쟁론-농민혁명론의 심화가 한국 학계를 압도한 탓인지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연구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련 연구의 부진은 농민전쟁론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한 경향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 않은 탓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II.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자의 1894년 都會, 즉 어셈블리에 대한 추적 과정

이러한 가운데 최근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답론을 제시한 연구서가 발간되어 주목된다.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이라는 제목으로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지수걸이 작성하였다. 저자는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을 역임하기도 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일제시대 사회사 전공자라는 점이다. 1910년 이전 한국근대사 전공자 가운데 동학농민군 관련 신규 박사학위논문 작성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서 또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일제시대 전공자가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 초창기부터 일제시대 농촌진흥운동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1993, 역사비평사)을 펴낸 한국 근대 사회운동사 연구의 획을 그은 걸출한 연구자이다. 이를 통해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좌편향에 매몰되거나 고립된 부문운동에 그치지 않고 전체 민족해방운동에 이바지하는 운동이었음을 밝히고 해방 이후 전개된 인민위원회 운동과 농민위원회 운동의 주요 역량이 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농민을 한국 근현대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한국 근현대를 관통하는 농민 본위의 역사 서술의 모범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일제시대 사회사 전공자이지만 결국은 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연구 시야를 확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일제시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이끌었던 농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미 그보다 이전인 조선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1894년의 봉기라는 경험에 토대를 두고 활동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판단이 바로 이 연구에 뛰어들게 한 직접적인 동기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주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2010년부터는 장기간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지역 기념사업의 추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부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기본계획』 집필에 참여하고 2006년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은 연구로도 이어져 201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공주 지역 본위의 동학농민군 관련 서술 및 시론을 작성하였다.

2015, 「1894년 공주대회전 시기의 ‘공주 확거 고수 전술’과 ‘호서도회’ 개최 계획」, 『역사문제연구』 33

2015, 「국가의 역사독점과 민중기억의 유실-‘우금티 도회(都會)’를 제안한다」, 『역사비평』 11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제는 都會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京師直向을 하기 위하여 공주를 돌파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주에서 湖西都會를 열고 일종의 정치협상을 시도하고자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1980년의 “광주 시민군”이 일종의 “무장시위대”적 성격이 강했듯이 동학농민군 또한 전투 혹은 전쟁을 지향한 “혁명군”이라기보다는 유교적 역사관에 기초한 민중적 담론이자 실천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기존의 혁명주의적 농민전쟁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엥겔스가 의도한 혁명적 전통으로서의 독일농민전쟁, 그리고 이를 투영하여 “근대”나 “진보”라는 개념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농민전쟁론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주 우금티를 돌파하려

고 전투를 시도하다가 일본군과 관군에게 격파되어 해산하였다는 기존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서술을 비판하고 남접·호남 중심의 동학농민군뿐만 아니라 북접 동학교단에 가까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호서 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전투를 의도하기보다는 都會을 열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 구성을 위하여 내어놓은 어셈블리(Assembly) 이론(이승준, 정유진 옮김, 2020, 『어셈블리』, 알렙)을 활용하여 1894년 공주에서의 사건이 군사적 전투라기보다는 都會, 즉 집회(Assembly) 내지 점거(Occupy) 투쟁이며 이러한 현상은 1892년 말 공주 및 삼례에서의 도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어셈블리(Assembly)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의미하며, 네그리 등의 설명에 따르면 21세기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회, 이를테면 아랍의 봄, 한국 촛불집회, 홍콩 우산혁명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들이 중앙 집중화된 리더십을 해체하고 지도부가 아닌 다중에 전략을 수립하여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1894년 공주에서의 점거 투쟁은 엥겔스가 말한 농민전쟁론의 증명을 위한 군사적 전투라기 보다는 1892년 집회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치투쟁이었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결론이다. 더욱 부연하자면 저자는 농민전쟁에 따르면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은 객관조건이나 주체역량이 미숙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지만,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문화를 반영한 도회이자 의거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왕조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대파국의 서막, 즉 길게 보면 결국은 승리한 투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분명히 기존의 농민전쟁론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동학군의 전투 행위가 아닌 정치적 담판을 위한 “공주 점거투쟁”의 역사적 의미

다소 지리할 수 있지만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 투쟁-남
접·호남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의 목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

1부 공주 점거투쟁의 배경

제1장 갑오변란 이후 시기 일본과 갑오정권의 동학군 탄압 정책

1.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동학군 탄압 정책
2. 갑오정권의 동학군 대책과 양호순무영 설치
3. 충청감영의 수성책(守城策)과 동학군 탄압 활동

제2장 공주 점거투쟁 전후 시기 공주(호서)의 지역 사정과 동학군 활동

1. 감영도시 공주의 지정학적 특성과 동학 교세
2. 공주 지역 동학군의 도회·의거 투쟁
3. 공주(호서) 지역 동학군과 유희군의 항일연대 활동

2부 공주 점거투쟁의 전개 양상

제1장 남북접 연대의 성사와 공주 점거투쟁 합의

1. 동학군의 2차 봉기와 남북접 연대의 성사
2. 남북접 지도부가 합의한 공동투쟁의 목표와 방법

제2장 공주 점거투쟁의 시기별 추이

1.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진출과 일본군 및 관군 동향
2. 공주 1차 투쟁: 이인·대교·효포싸움
3. 공주 2차 투쟁: 우금티·청주성싸움
4. 남북접 동학군의 호남 퇴각과 근거지 사수투쟁

제3장 남북접 동학군의 해산과 집단학살

1. 남북접 동학군의 해산과 귀향
2. 관군 및 민보군의 동학군 색출과 집단학살

제4장 항일연대의 실패와 호서 유생들의 반동학군 활동

1. 공주 점거투쟁 시기 지역주민 동향
2. 동학군의 항일연대론에 대한 지방수령 및 관군의 반응
3. 공주 점거투쟁 시기 호서 유생들의 반동학군 활동

3부 공주 점거투쟁의 성격과 의미

제1장 동학군의 집단정체성 재론

1. ‘농민군’인가, ‘동학군’인가?
2. 시위대인가, 혁명군인가?
3. 일본 측 자료를 통해 본 동학군의 집단정체성

제2장 1894년 어셈블리와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

1. 19세기 후반 조선의 도회·의거 문화
2. 교조신원운동과 도회·의거 투쟁의 활성화
3. 1894년 어셈블리와 도회·의거 문화의 상관성
4. 공주 점거투쟁 시기의 패거/의거 논쟁

결론

보듯이 농민전쟁론에 따라 통상 공주 우금치 전투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목과 목차를 통하여 “공주 점거투쟁”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또한 기존 농민전쟁론에 의거한 “동학농민군”이 아닌 “동학군”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난리굿(판)을 벌인 비적(폭도)도 아니고 내전(전쟁)에 참여한 인민혁명군(군대·병사)도 아니었다. 이는 이들을 비적(폭도)로 규정하기 위한, 즉 군대를 동원한 집단학살 사건을 군인(군대) 간의 전투로 호도하기 위한 일본군 내지 관군

의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군대와 군인(병사)이 아니라 점주들의 통제와 인솔 가운데 都會에 참여한 집회시위 군중일 뿐이기에 “동학군”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여기에서의 동학군의 軍은 農軍(농사꾼), 樵軍(나뭇꾼) 등처럼 특정 집단이나 결사 혹은 무리(꾼)를 뜻한다고 한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1부 제1장에서는 공주 점거투쟁의 배경으로 1894년 6월 일어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즉 갑오변란을 먼저 내세웠다. 기존의 남접·호남 중심의 농민전쟁론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1894년 3월 무장기포를 첫 시점으로 내세우는데 반하여 이 연구는 1894년 6월 갑오변란을 첫 대목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1부 제2장에서도 호남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보다는 공주 점거투쟁의 배경으로서 공주 및 호서 지역의 都會 활동을 주로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주 점거투쟁이 이루어지는 경과를 다루었다. 2부 제1장에서는 남접 중심의 삼례 재기포보다는 북접 교단을 중심으로 한 최시형의 1894년 9월 18일 기포령을 중심으로 2차 봉기를 서술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이때만 하더라도 최시형은 남접 전봉준과 협력을 도모하기보다는 이들을 토벌의 대상으로 상정하였고 전봉준에게 “폭거중지 혁심개도” 유시를 전한 이후에야 이를 전제로 남북접 연대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도 전봉준도 공주를 돌파하여 서울로 올라가기보다는 공주에서 점거투쟁을 전개하여 일본군이 범궐한 연유를 힐문하는 정치적 담판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1894년 10월 이후 공주 지역에서 전개되는 동학군의 활동은 농민전쟁을 벌인다기보다는 정치적 담판을 위한 점거투쟁의 성격이 더욱 강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2부 제2장에서 서술한 공주 1차 투쟁, 즉 이인·대교·효포싸움과 공주 2차 투쟁, 즉 우금티·청주성싸움은 모두 점거투쟁의 일환으로 다루어졌다.

이를테면 공주 1차 투쟁 당시 효포싸움에서도 동학군은 흥개를 씌운

큰 가마를 등장시켜 본격적인 공성전을 의도하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행진 시위를 기획하였다고 한다. 평화적인 행진을 벌이는 동학군을 향해 일본군과 관군이 집단 발포를 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전투가 아니라 어셈블리, 즉 집회, 都會를 추구하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설명되었다.

공주 1차 투쟁의 실패 이후에는 전봉준도 “폭거중지 유심개도” 유시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북접 교단 측의 손병희도 南伐旗를 꺾고 우금티싸움을 함께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서술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우금티싸움 또한 적극적인 전투 수행이라기보다는 부득이했던 결사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동학군은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기 전날 밤부터도 전투보다는 공주 분지를 둘러싸고 산상거화 투쟁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군 지도부는 우금티싸움 당시에도 희생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위 효과를 최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지 실제로 희생자는 1,000여 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자는 추론하였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금티싸움 이후 일본군과 관군에 의하여 이루어진 동학군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이해될 수 있다. 2부 제3장에 따르면 동학군은 인의와 민본의 실천을 都會, 즉 어셈블리를 통하여 요구하는 의군이었기 때문에 자진해산 이후에도 별다른 전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일본군과 관군은 이들을 비류나 잔적으로 규정하여 잔인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동학군 중에는 전투 과정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다 죽은 사람들보다는 귀향하다가 혹은 집에 가서 붙잡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3부에서도 보이듯이 기존 동학농민군 최후의 항전이라고 일컫는 북실전투 혹은 대둔산전투도 전투라기보다는 전투 의지가 없는 자진해산한 동학군에 대한 일본군과 관군의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3부 제1장을 통하여 1894년 어셈블리의 주체를 두고 기존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농민군이라기보다는 동학도로서의 정

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동학군”이었고 마찬가지로 혁명군이라기보다는 “시위대”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3부 제2장에 의하면 이러한 전통은 1894년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멀리서 1862년 임술민란 당시 결성된 都會, 의거의 전통, 즉 어셈블리 결성의 전통이 1892~1893년 간 동학교도들의 공주도회, 보은도회를 통하여 다시금 분출되었으며 그것이 1894년 공주 점거투쟁에서 극대화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때 뿌리를 내린 전통이 1919년 어셈블리, 즉 3·1운동으로 이어지고 가까이는 1960년 어셈블리, 즉 4·19혁명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여 저자 자신이 연구하였던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한국근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은연중에 나타내면서 글을 맺었다.

IV. 자료 및 이론 활용의 한계와 연구사적 의의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두고 농민전쟁일수 없으며 정치적 담판을 위한 都會, 혹은 집회, 즉 어셈블리 결성을 통한 “점거투쟁”이었기에 동학농민군도 아닌 “동학군”으로 불러야 한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그 당시의 자료 및 이후 천도교 계열 교단의 자료 등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상당 부분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시의 사건을 이해하여야 1960년까지 이어져 내려온 조선후기 이래 한국인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어셈블리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 구성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저자의 촉구 또한 공감 가는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과 이론의 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더욱 생각해 볼 사안이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봉준공초』에 보이는 전봉준의 인식에 대한 문제다. 농민전쟁이 아닌 점거투쟁으로서의 동학군 활동을 드러내고자 한 문제의식의

단초는 저자도 인용한 다음의 자료에서 나타난다.

공주(忠淸監營=都會之處)를 전격적으로 점거한 뒤, 의려(義旅)를 규합(糾合)하여 농성전을 벌이며(確據·固守, 相持하며), 일본군에게 격(檄: 大義布告)을 전하여 정치담판(請問·詰問)을 벌이려 했다.

이 자료의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其後에 聞흔직 貴國이 開化라 稱헝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헝
미 無헝고 또 檄書도 업시 率兵헝고 우리 都城에 入헝야 夜半에 王宮을
破擊헝야 主上을 驚動헝엇헝기로 草野의 士民더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
慨흥을 不勝헝야 義旅를 糾合헝야 日人과 接戰헝야 此事實을 一次 請問
코져 흠니다 …… 其後에 思量헝즉 公州監營 山阻헝고 河을 帶헝야 地
理가 形勝헝 故로 此地을 雄據헝야 固守흥을 謀헝즉 日兵이 容易히 擊拔
치 못홀로 公州에 入헝야 日兵의거 檄을 傳헝야 相持코자 헝야더나[니]

물론 저자의 설명대로 전봉준은 義旅를 규합하여 공주감영에 웅거한
후 일본군에 격문을 전하여 왕궁 격파를 請問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문이 저자가 표현한대로 정치담판을 의미하는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다음으로 공주감영 입성 자체가 적어도 관군과
의 충돌을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투 행위이며,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군의 왕궁 격파를 청문할뿐만 아니라 공주에서도 분명히 일본군을 상대
할 의지를 내비쳤다. 애초부터 전봉준이 자신의 집단을 義旅라고 표현
한 것은 군사적 성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일본인과
接戰하고 왕궁 격파를 1차 청문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투 행
위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민전쟁론
을 비판하기 위하여 당시 전봉준의 목표가 전투 행위가 아닌 정치담판
에 있었다는 저자의 설명은 아직까지는 쉽게 수증하기가 어렵다.

호남 동학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저자도 표현하였듯이 이들은

삼례 재기포 당시에든 구병입경이나 기병부경을 호언하며 식량과 무기를 모아들였다. 효포싸움 당시 이루어진 거화투쟁이라던가 흥개를 씌운 큰 가마를 등장시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행진 시위를 한 사실도 당시 무장력이 빈약하였던 농민군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전형적인 전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북접지도 부가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언한 뒤에 벌어진 각종 충돌 사건은 어디까지나 전투 행위 중에 벌어진 것으로서, 일본군과 관군의 비무장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집단학살이라고만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둘째, 저자는 전봉준도 북접 동학교단 최시형의 “폭거중지 유심개도” 유시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교단 측의 손병희도 우금티싸움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시천교종역사』 및 『천도교회사초고』에 나타나는 다음의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봉준이 慨然히 탄식하며 말하길 “봉준은 師門의 徒弟가 되어 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지럽혔으니 곧 사문의 죄인이요, 官倉에서 곡식을 꺼내고 官倉을 살해하였으니 국가의 죄인이요, 백성들의 재물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국민의 죄인이다. 한번 죽어 속죄하는 것은 본래 달갑게 마음먹었던 바다. 오직 원하건대, 제군들은 선후책을 더욱 강구하여 선사의 원통을 씻어드리고 생민의 상처를 구료할 것을 기하도록 하자.”(『시천교종역사』) …… 손병희가 각포두령에게 謂하야 왈 전봉준이 이미 悔改하였으니 伐南接의 旗號를 改하노라 하고, 更히 척왜양창의기를 建하다.
(『천도교회사초고』)

위의 기록은 전봉준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남접 세력을 불신하였던 동학교단을 모태로 한 후계 교단의 자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1894년 당시의 그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기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봉준이 그동안 師門, 즉 교단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서술은 기존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통상적인 전봉준의 면모와도 일치하지 않거니와, 어디까지나 교단이 우위에 있었음을 강조

하는 교단의 입장만이 반영된 서술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온당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의 죄인”, 그리고 “국민의 죄인”이라는 표현은 1894년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근대적 어휘로 구성된 것이기에, 역시 당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동학교단의 후계 교단에서 기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을 토대로 전봉준도 동학교단에 귀의 하여 전쟁보다는 점거투쟁을 기도했다는 저자의 입론 역시 보다 더 폭 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 구성을 위하여 내어놓은 어셈블리 이론을 1894년의 사건에 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분히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현대적인 현상과 사건,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중세 말기를 분석할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1세기에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하고자 하는 『어셈블리』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동학농민군이 마치 민주주의 질서를 지향하였다고 서술하기도 사실은 매우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셈블리는 비단 오늘날에만 통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Assembly 그 자체는 집회를 의미하며 이것은 서구 세계에서 근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789년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들이 기존의 삼부회를 대체하여 프랑스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를 조직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저자도 보은도회 주체들이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민회”를 자칭한 점을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21세기 민주주의 질서 구성을 위한 어셈블리보다는 중세 말 근대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던 동서양의 어셈블리를 깊이 있게 추적하는 것이 더욱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동학군의 도회가 왕조체제를 부정하는 주권재민 의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거듭된 어셈블리, 점거 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민중세계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조선왕조 사회의 통치체제나 지배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역사의 흐름 자체가 크

게 바뀐 “대파국”이 시작되었다는 저자의 결론은 긍정할만 하다. 21세기형 어셈블리 이론을 도입하여 19세기말 당시를 설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이 보이고, 동학교단에서 생산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서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기존의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점에서 이 저서의 연구사적 의의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